

더불어 민주당 스타트업벤처위원회 2025. 5. 27(화)	보 도 자 료 담당: 김재상 비서관 연락처: 010-9611-5413
--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스타트업벤처위원회’ 출범회의 개최

- AI, GovTech,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 벤처캐피탈, 정책자문단 등 21인 합류
 - 출범회의에 이어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전달식 진행
- 박상혁 위원장,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스타트업벤처위원회’(위원장: 박상혁 의원)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의제화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스타트업벤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상혁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 먹사니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이 참석했다.

AI, 거브테크(GovTech),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 14명을 비롯해 벤처캐피탈(VC)과 정책자문단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코딩, 엘리스그룹, 나만의닥터, 닥터나우, 다자요, 고위드, 피씨피스탠다드, 팀모노리스 등 스타트업은 물론,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코딩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타트업벤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으로, 스타트업을 둘러싼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상혁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스타트업벤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철승 먹사니즘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국가경제를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희망”이며 “여러분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 약속했다.

한편, 이날 출범회의 이후에는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 전달식도 진행되었다.

제안서에는 ▲스타트업 중심의 AI 진흥 정책 체계 마련, ▲스타트업 EXIT 활성화를 위한 M&A · CVC 투자체계 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지역 기반 글로벌 셀링 스타트업 육성체계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스타트업위원회는 정책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업계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대선 이후에도 국정과제 반영, 입법 추진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끝/

[첨부] 현장 사진



▲ 스타트업벤처위원회 출범회의



▲ 정책제안서 전달